내일부터~8월7일까지 **도민 제안 아이디어**

'안심 생활 행복전북 만들기' 공모

가정이 편안한 전북도민 · 학교에서 행복한 아이들 · 이웃과 소통하는 전북인 등 3개 테마

마을세무사 업무협약 전북도는 서민층 및 영세사업자 등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고자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 김영록)와 마을세무사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전북도가 '안전전북'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에 도민들의 아이디어를 적극 수렴할 방침이다.

23일 전북도는 '안심하고 생활하는 행복전북 만들기'를 주제로 2016년 도민테마 제안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도정의 주요현안 및 역점방향에 대해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고자 매년 도민테마 제안 공모를 실시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 도는 '민원신청서에 불필요한 행정서류 구비 의무제출 규제개선(2015년도)', '과속방지턱에 야광물질 도색(2014년도)' 등 좋은 정책들을 도민참여로 선정해 왔다.

이번 공모는 25일부터 오는 8월7일까지 75일간에 걸쳐 ▲가정이 편안한 전북도민 ▲학교에서 행복한 아이들 ▲이웃과 소통하는 전북인 등 3개 분야(테마)로 나누어 진행한다.

분야별 공모전의 실시 목적은 안전을 도정 운영의 가장 기본으로 하는 도의 정책방향과 부합되고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는 아동학대, 자살, 학교폭력 예방 등을 중점으로 공모를 추진해 대인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도민공감 행복정책을 만들기 위함이다.

분야별 우수제안자에게는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과 함께 도지사 표창이 수여되는 이번 공모전은 도민들의 소중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관련부서, 전문가, 제안자가 직접 참여하는 실현회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관계부서는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아이디어를 검토해 사업구체화 및 우수 실행을 높이고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최훈 기획관리실장은 "도민제안은 실제 도민들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도민 아이디어 소통의 장이다"면서 "특히 이번 제안은 '안전'을 주제로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 도민제안 응모는 도민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가 참여가 가능하며, 전북도 공모전용 홈페이지인 '별별궁리(http://idea.jb.go.kr)'에 온라인 접수와 우편,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정영수 기자

권익위, 오늘 '김영란법' 공청회

13명 초청 토론… 누구나 참석 가능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5월13일~6월 22일) 중 입법예고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 진행은 김병섭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가 맡을 예정이다. 곽형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이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언론인, 교원 뿐만 아니라 학계, 관련 업계, 재계,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을 대표한 13명의 토론자가 참여한다.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유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석부회장, 김성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유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재만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부회장, 김홍길 한국농축산연합회 운영위원, 민상헌 한국외식업중앙회 이사, 박재현 중앙일보 논설위원, 송준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이병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정책연구원장, 이원섭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 이재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사, 임연홍 한국화훼협회 부회장 등이다.

공공기관을 비롯해 학계, 시민단체, 일반 국민 등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방청을 위한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권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인 시행령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법 시행일(9월28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시행령 제정과 국민, 공직자 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 등 필요한 후속 작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란법은 지난해 3월3일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같은달 27일 공포됐다. 1년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권익위는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정부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9일 식사대접 허용 금액 3만원 이내, 선물비용 5만원 이내, 경조사비 10만원 이내로 각각 정한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발표했었다.

이를 두고 내수 위축 우려와 축산·화훼농가의 반발, 위헌 논란 등의 지적이 나왔다.

적용 대상이 너무 광범위한 데다 기준 역시 모호한 부분이 많아 단속·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박용주 기자

도, 美워싱턴주와 교류협력증진 합의서 체결 추진

세계잼버리 유치 · 태권도대회 참가 협조 포함… 탄소산업 MOU 4자 협약 등 예정

전북도가 교류 20주년을 맞아 워싱턴주를 공식 방문하고 교류협력 증진 합의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2017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와 2023 세계 잼버리 대회 등 대규모 국제 행사를 앞두고 이뤄지는 방문이기에 이에 대한 지원 및 협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워싱턴주 등과의 탄소산업 MOU 협약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도내 탄소산업 해외마케팅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포함한 전북대표단은 도와 워싱턴주의 우호협약 20주년을 맞이해 세계잼버리 유치 홍보활동과 탄소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및 다분야 교류를 위해 24일부터 29일까지 4박6일간의 방문 일정을 갖는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8월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지사가 전주 한옥마을 방문시 도에 요청한 워싱턴 방문을 통해 계획된 것으로 교류 20주년 기념 교류협력증진 합의서 체결 등 의미 있는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번에 체결할 교류협력 증진 합의서에는 공무원 상호 파견 및 민간교류 협력 강화 등 기본적인 지역간 이해증진 및 신뢰구축 내용을 시작으로 '2023 세계잼버리 전북유치 협조'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참가 당부' 등 국제대회 유치에 대한 협조 요청의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도와 워싱턴주와의 탄소복합소재 산업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도 합의서에 포함됐다.

특히 도는 보잉사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탄소복합재 투자시 공동연구개발 등 상호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전북도·워싱턴주·탄소기술원·워싱턴대학으로 이어지는 '탄소 MOU 4자 협약식'을 가질 예정이다. /정영수 기자

도,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자 인권교육

인권침해 재발방지대책 일환

전북도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장애인 인권침해 행위의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시설 운영 관리자급 190여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에 나섰다.

23일 전북도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도청 중회의실에서 전북지역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자 대상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차로 23일에 시설의 대표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준형 도 인권팀장의 '인권의 이해와 장애인 인권 보호'를 주제로 한 교육에 이어, 시설 대표들의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인권보호를 다짐하는 결의문 채택이 있었다.

시설 대표들은 결의문에서 "장애인도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박철웅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인사말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로, 장애인 인권침해 행위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가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이번 인권교육을 계기로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권침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했다.

/정영수 기자

전주시민을 위한 무료 특강

한국스피치&리더쉽 컨설팅과 전북도내 6개대학 평생교육원 스피치과정원우회가 공동으로 전주시민과 도민을 위한 무료 공개 특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행사는 삶의 즐거움과 명랑한 사회를 위하고 시민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인상학 및 부부대화기법 특강으로 실시됩니다.

강사: 주 선 희

- 원광디지털대학 교수
- KBS 사회교육원 강사
- 인상학박사 1호
- KBS 아침마당 패널

강의주제: 행복을 부르는 인상

강사: 김 양 옥

- 한국스피치&리더쉽 컬설팅 대표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 전북대 평생교육원 전담교수
- KBS 아침마당(3회) 출연자

강의주제: 부부대화기법

◎일시: 2016. 5. 25(수) 오후 7시 ◎장소: 전주시청 강당
◎문의전화: 231-6669, 285-6676 (주소: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주최 : 한국스피치&리더쉽 컨설팅
도내 6개대학 평생교육원 스피치과정 원우회